

5장 들포도의 추수

1. 포도원의 노래 (5:1-7)

5장의 첫 구절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 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 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하고 시작한다.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 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되는 것을 보면, 이제 예언자의 감미로운 사랑의 노래가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 주인은 이제 좋은 포도가 맺기만을 바랐다. 좋은 포도가 맺히면 그것으로 좋은 포도주를 빚고, 그 안에서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맺은 것은 ‘들포도’ 였다. 달리 번역하면 ‘(죽어서) 썩은 포도’ 혹은 ‘악취 나는 포도’ 였다(5:1-2).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사랑하여서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울타리와 포도주 틀도 만드셨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포도원이 스스로 좋은 자질을 갖춘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한 정성을 기울여 가장 좋은 조건을 조성하신 것이다(5:4). 그러나 그들은 ‘죽어서 썩고 냄새가 나는 포도’ 를 맺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포도원은 헐어 버리고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3-4절에서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을 향해,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묻는다. 그러한 포도원을 심판함이 당연한 일임을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5-6절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직접 판단하는 말을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의 울타리와 담을 제거하여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게 하실 것이고(시 80:8-19) 가시나무가 나서 황폐케 하며, 또한 비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실 것이다(신 28:23-24).

7절은 언어유희로 포도원의 노래를 요약한다. “그들에게 정의(미쉬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미쉬파크)이요, 그들에게 공의(체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차아카)이었도다” 하고 이스라엘의 형편을 지적하였다.

2. 들포도에 대한 저주 (5:8-25)

5:8-23에는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이 여섯 번 나온다(8, 11-12, 18-19, 20, 21, 22-23). 그리고 그 사이에 세 개의 심판 문단이 있고(9-10, 13-15, 24-25), 중앙에는 여호와께서 그 공평하심과 거룩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받으시고 자기 양 떼를 먹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16-17). 저주와 심판의 맥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이야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선언된 화는 탐욕이다(5:8-10). 그들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였다. 기업 제도를 무시하고 온 땅을 차지하려는 탐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땅이 여호와와의 것임(레 25:23)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한 호멜(약 220리터)의 씨를 뿌려도 한 에바(약 22리터)의 소출만 거두게 될 것이다. 차라리 씨를 심지 않느니만 못한 형편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단합을 추구하고 연회를 즐기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대하 무관심한 것에 화를 선언하셨다(5:11-12).

이제 그들은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를 뿐 아니라 음부가 그들을 삼켜서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귀인들만이 아니라 천한 사람들까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5:13-15).

5장은 30절까지 있는데 그 중간 부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16) 하는 찬송이 울려 퍼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심판을 선언하는 근거임을 밝히는 것인

데, 이 내용은 6장에 나오는 스랍들의 찬송과 연결된다. 첫째와 둘째 부분에서는 화를 선언하고 나서 즉시 심판을 선언하였지만, 셋째에서 여섯째까지는 화를 연이어서 선언하고 맨 마지막 결론에서 심판을 선언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정면으로 맞서는 여러 죄악들을 열거하고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다.

셋째 부분에서는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하셨다(5:18-23). 그들의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와 거룩하심에 정면으로 맞서는 태도였다(5:18-19).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도모’는 심판에 대한 선언인데 그들은 ‘그러면 심판이 임해 보도록 해 보라지’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넷째, 그들은 더 나아가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았다.’ 선악이나 빛과 어둠의 기준을 자기들이 스스로 정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화를 선언하셨다(5:20). 다섯째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에게 화를 선언하셨다(5:21).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고 의인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셨다(5:22-23).

연이어서 화를 네 번(셋째-여섯째) 선언하신 후에 “여호와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 (8:24)한 이스라엘 나라를 여호와께서는 이방의 강한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3. 임박한 파괴 (5:26-30)

앗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은 유다 왕국이 약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흑암과 고난과 어둠 가운데 버려두셨다(5:20, 30).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원칙을 따라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5장 전반부의 포도원 비유와 후반부의 심판 선언은 연결된다. 잘 갖추어진 포도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유다 백성은 좋은 열매를 맺을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유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다. 그 결과 그들은 흑암과 고난에 떨어진 것이다.

5장 익힘 문제

1. 1, 2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답을 찾아 쓰십시오.

- 1) 포도원은 무엇을 뜻합니까?
- 2) 좋은 포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 3) 들포도는 무엇을 뜻합니까?
- 4) 여호와께서는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고 답을 헐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6절)

2. 5장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몇 번이나 나오니까? (8, 11, 18, 20, 21, 22절)

3.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을 치신 것은 그들이 여호와와 율법을 어떻게 대했기 때문입니까? (24, 25절)

4.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24-30절)

5. 1) 여호와께서 그날에 땅 끝에서 불려온 자들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을 것인데 그 소리가 무엇과 같을 것이라 하셨습니까? (30절)

- 2) 그 땅을 바라보면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30절)